



조 광 철 | 광주광역시 학예연구사
(ipatmat@korea.kr)

황룡강의 어제

황룡강은 영산강을 이루는 수많은 냇강 중 큰 규모에 속한다. 여느 강처럼 황룡강에도 시간의 목직한 힘이 깃들어 있고 역사유적도 많다. 호남을 대표하는 대학자 하서 김인후를 배향한 필암서원, 퇴계 이황과의 사단칠정 논쟁으로 유명한 고봉 기대승을 모신 월봉서원이 대표적이다. 요월정 등 이름난 정자도 많다. 그러나 정작 황룡강과 가슴을 맞대고 살았던 사람들의 소소한 얘기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는 것 같다.

황룡강은 전라남북도의 지리적 경계선인 해발 654미터인 입암산(笠岩山) 남쪽 기슭에서 발원한다. 이후 강은 고대 지각변동의 산물인 비활성 단층선을 따라 흐른다. 이 단층선은 장성댐 위에서 시작해 광주광역시 광산구 칠봉산(七峰山)을 거쳐 나주, 함평, 무안을 경유해 무안군 청계면 복길



해동여지도상의 황룡강 일대

리에 이르러 서해 바다로 파고든다. 공교롭게도 전남의 석회암은 모두 이 선을 따라 분포하는데 이는 장성군 단광리에 시멘트 공장이 생겨난 이

유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강이 단층선에만 얽매여 흐른 것은 아니다. 아무리 큰 강도 산을 넘지 못한다고 했는가? 중도에 지형의 영향으로 황룡강은 두 번 유로를 바꾼다. 월봉서원이 들어선 판사등산과 한때 금광 채굴이 활발했던 용진산(龍珍山) 사이에서, 또한 물고기가 오를 만큼 완만하다는 뜻의 어등산(魚登山)과 옛 복룡현의 진산이었던 복룡산(伏龍山) 사이에서 한번씩 꺾인다.



월봉서원

비록 유로가 바뀌긴 해도 황룡강은 시종 가파르고 좁은 계곡을 타고 흐르는 양상을 띤다. 이는 황룡강 동쪽 담양군을 관통하는 영산강이 상류부에서부터 일치감치 너른 들녘 사

이를 가로질러 흐르는 것과 대조된다. 그러나 두 지역 모두 강에 기대어 농업을 생계기반으로 삼았다는 점에서는 같았다. 그래서 황룡강 유역의 주민들에게 강과의 교감은 대개 농사일을 통해서였다.

요즘 사람들은 강을 만만히 본다. 그도 그럴 것이 예전에 비하면 치수와 관개시설 덕분에 시름을 겪는 일이 많이 줄었다. 특히, 황룡강 유역은 장성댐 덕분에 물이 풍족해졌고 물의 흐름도 순해졌다. 장성댐은 1960년대 중반 연이은 가뭄으로 큰 곤욕을 치른 뒤에 건설됐다. 1973년에 착공해 1976년에 준공됐으니 댐을 짓는데 3년이 걸렸다. 그리고 그 안에 물을 채우는데 다시 3년이 걸렸다. 이 거대한 댐을 수원으로 하는 방대한 농업용수소가 전남서부지역에 거미줄처럼 얹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최근에 일어난 변화다.



장성댐

예전 황룡강은 그렇게 유순하지 않았다. 홍수 때면 그 이름답게 강은 황톳물을 토해냈다. 거친 물살이 장애를 만나면 미친 듯이 강바닥을 후벼 파다. 비록 지금은 장성호에 잠겼지만 강의 최상류에 있었던 봉덕연(鳳德淵), 종류인 장성군 황룡면의 봉황연(鳳凰淵), 그리고 장성군과 광주광역시 접경에 있었던 또다른 봉덕연은 모두 강의 거친 에너지가 울부짖으며 남겨놓은 흔적, 즉 깊은 소(沼)였다.

범람도 잦았다. 오늘날 농경지로 이용되는 범람원은 본디 자갈밭이거나 푸석푸석한 모래땅이었다. 그래서 강가의 오래된 민가의 벽과 담장을 보면 강돌과 사질토를 버무려 쌓은 것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이런 범람원은 19세기까지 범접할 수 없는 땅이라 여겼다. 포전(浦田)이라 부르던 이런 범람원은

20세기에 들어 점차 뽕밭으로나 쓰는 정도이다가 이후 관개 시설의 확충과 제방 축조 등으로 논으로 탈바꿈했다.

그렇다고 옛 사람들이 무기력하게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다. 장성읍 성산리는 황룡강 본류와 장성천이 합류하는 곳이다. 두 줄기 강이 만나는 탓에 범람이 잦았다. 그래서 일찍이 제방을 높이고 그 위에 숲을 가꿨다. 18세기에 청주의 선비 이하곤(李夏坤)이 이곳을 지나며 남긴 기록을 보면, 숲은 느릅나무와 느티나무로 울창했다고 한다. 누구나 감탄을 자아냈을 만한 장대한 숲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세월의 무정함 이랄까, 지금은 그 장대함은 엿볼 수 없다. 그나마 용케 남은 몇 그루의 고목만이 아쉬움을 달래준다.

황룡강 계곡은 교통로로서도 중요했다. 전라남도과 북도의 지리적 경계선은 흔히 노령산맥이라 한다. 강의 발원지인 입암산도 이 산맥의 일부다. 그러나 엄밀하게 사람의 척도로 그 경계는 산맥 전체가 아니라 노령 또는 갈재라는 부르는 고개다. 해발 270여미터인 갈재는 주변의 600~700미터의 고산준봉 사이로 나지막한 안부(鞍部)를 이룬다. 그래서 노령산맥을 넘고자 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였고 그 때문에 많은 역사가 넘나들었다.

고대에도 그렇겠지만 문헌상에도 갈재에 얽힌 얘기는 많다. 1010년 거란족에게 개경을 내준 고려 현종은 전라도 나주까지 피신해왔는데 그 때 갈재를 넘었다. 물론 다시 환궁을 할 때도 같은 고개를 넘었다.

통행이 많다보니 교통과 관련된 문화경관도 많다. 갈재 아래 남도의 첫 동네는 목란마을이다. 본디 갈재를 넘어온 나그네들이 여독을 풀고 갈재를 넘으려는 이들이 술을 고르기 위해 묵었던 주막촌이었다. 목란마을에서 실오라기 같은 길을 내려오다 보면 금세 눈에 띄는 갈애바위도 있다. 연한 갈색을 띠며 우뚝 솟은 이 바위는 초승달 같은 눈을 치켜뜬 영락없는 여인네 얼굴이다. 자연의 조화인지, 누군가의 장난기가 발휘된 흔적인지는 알 길이 없다. 어쨌건 오랫동안 갈재를 넘나든 사람들은 이 바위에 눈인사를 건넸다. 조선초엽의 기록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이 바위를 일러 ‘처용암(處容岩)’이라 했고 고지도 중에는 ‘아미(娥眉)바위’라 적은 것도 보인



갈애바위

다. 현지주민들은 '미인바위'라고도 부른다. 이 바위와 얹힌 전설은 듣는 이의 귀를 무겁게 할 만큼 많다.

갈애바위 아래엔 원덕리 미륵불도 있다. 갈애바위보다는 묵직한 인상을 준다. 미륵불 일대는 목란마을처럼 나그네들이 묵던 곳이었다. 나그네들은 이 미륵불 앞에서 여로의 안녕을 빌었을 것이다.



원덕리 미륵불

갈재에서 내려온 길은 검바위재를 넘어 장성담 앞에 이른다. 이때부터 길은 본격적으로 황룡강 본류와 나란히 걷는다. 장성담 자리는 원래 역(驛) 터였다. 역은 본디 단암역(丹岩驛)이라 했는데 나주의 청암역을 옮겨오면서 청암역이라 불렀다. 황룡강 유역을 비롯한 전남 서부의 역로를 관장했던

만큼 꽤나 큰 역이었다. 세월이 바뀌어 청암역은 장성담이 생기면 수몰됐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황룡강이 일군 계곡을 타고 내달린다. 황룡강 계곡은 요즘도 호남선 철도, 국도 1호선, 호남고속도로가 지나는 길목이다. 길의 외양은 바뀌었지만 길의 축선은 예나지금이나 황룡강에 붙박이처럼 달라붙어 있는 것이다.

황룡강이 전남의 초입이자 교통로였던 까닭에 애환도 많았다. 갈애바위 아래 반쯤 파괴된 비석 하나가 길옆에 서 있다. 비석 앞엔 '일귀지비(日貴之碑)'란 글귀가 보이고 뒤엔 그의 효행 사실이 하다만 이야기처럼 일부만이 남아 있다. 비석의 주인공은 전일귀(全日貴). 조선 정조 때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모셔 장성고를 사람들이 비석을 세웠던 것이다. 그런데 1890년대 동학농민군이 길을 가다 비문을 읽고 감복해 제사를 지냈다. 뒤에 이 사실을 알게 된 관군이 애꿎은 비석에 분풀이를 한다며 불을 질러 비석이 깨지고 말았다.



전일귀 효행비

전일귀 효행비는 황룡강이 1894년 동학농민전쟁의 격전지였다는 사실에 관한 수많은 에피소드 중 하나다. 당시 술재를 넘

어 온 전북 고창의 농민군은 황룡강의 지천인 개천(介川)에서 휴식과 보급을 위해 머물렀다. 장성읍 남쪽 강가에 터를 잡은 황룡장(黃龍場)도 당시 숨 가쁜 역사가 깃든 곳이다. 범성포로 들어온 관군이 장터로 육박해 들어오자 농민군은 근처 야산으로 피했다가 그곳에서 격돌했다. 관군은 대패했고 승승장구한 농민군은 그 여세를 몰아 갈재를 거쳐 전주성으로 진군했다. 황룡강은 동학농민전쟁의 대전환점이 된 장소였던 것이다.

한편 강은 교통로인 동시에 교통의 장애물이기도 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도강의 문제를 고민해야만 했다. 일찍이 관아에서 황룡강의 전략적 가치를 생각해 다리를 놓지 않는 건 아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마을에서 도강수단은 주민들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였다.

장성군 서삼면 송현리 주민들은 최근까지도 추석 무렵이면 동네 정자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흠다리 놓은 일을 숙의하는 전통이 있었다. 마을 앞 강가에 흠다리를 가설하는 일은 이 마을사람들의 몫이었다. 그들은 늦가을 내내 다리를 놓았고 다음 홍수 때가 올 무렵에 철거했다가 다시 추석이 되면 농기를 반복했다. 강폭이 넓은 일부 마을에서는 아예 주민들이 스스로 나룻배를 건조하고 사공을 고용해 나루터를 운영하기도 했다. 1960년대까지 지금의 서삼교(西三橋) 자리에 있었던 황룡나루가 그런 경우였다.

이런 일은 돈과 시간, 그리고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다. 한 마디로 말 같이 쉽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래서 누군가 다리를 놓아준다는가 한다면 그 자체로 복 받을 일이라 여기는 건 당연했다. 1933년 광주광역시 임곡동의 손송암(孫松岩)이란 여인이 그런 일을 했다. 손송암은 당시의 돈으로 220여 원이란 거액을 털어 임곡동 앞을 흐르는 황룡강에 다리를 놓았다. 이를 통해 못사람들이 강을 건너는 불편과 위험을 덜어주는 월전보시(越川普施)를 한 셈이었다. 강변생활은 버거웠지만 이런 사람들의 온정 덕에 견딜만했는지도 모른다.

강을 건너는 이유들은 다양했지만 그 중 하나는 장을 보려는 것이었다. 황룡강가에는 장들이 즐비했다. 장성군 북이면 사가리는 호남선 백양사역이 있는 동네이지만 동시에 장

성군 북부의 생활중심지인 사가리장(四街里場)이 서는 곳으로도 유명했다.

같은 군 황룡면 월평리에는 황룡장(黃龍場)이 열렸다. 오래전 김경찬(金京燦)이란 한 소년은 집안의 어린 종이 이 장터에서 닭을 사들고 오는 것을 보고 이런 시를 지었다. “황룡장에서 어린 아이가 새벽을 짊어지고 오는구나.” 황룡장은 한지, 소, 천어로 유명했다. 한지는 영화 <태백산맥>의 촬영지로 유명한 금곡마을을 비롯한 인근 산골에서 반입됐다. 닥나무가 풍부했고 물이 맑은 덕분이었다. 특히 황룡장의 한지는 족보를 만드는 종이로 성가가 높았다. 그 덕에 다른 장사도 잘 됐다. ‘최판길이네 비빔밥’, ‘고운경이네 어물전’ 등 간판급 점포들도 많았다. 우시장도 컸는데 멀리 강원도에서 소꾼들이 몰려들었다고 전해진다. 물론 요즘 황룡장은 예전만 못하다. 그래도 4일과 9일, 장날이면 장성읍 전체까지 들썩인다.

황룡장에서 남쪽으로 10km 남짓한 곳에는 임곡장(林谷場)도 있었다. 원래 벽촌이었던 이곳은 1914년 호남선 철도가 개통되면서 정거장이 생기더니 곧이어 면소재지가 됐고 오일장까지 섰다. 황룡장처럼 유서 깊은 장으로는 광주광역시 서봉동의 선암장(仙岩場)도 있었다. 지금은 택지로 개발돼 장터의 흔적은 없으나 이 장의 전통을 이어 지금은 송정장(松汀場)이 섰다.

대체로 행정구역상 장성군과 광주광역시를 가로질러 흐른 황룡강은 광주공항 남쪽에서 영산강과 합류하며 여정을 끝낸다. 황룡이란 이름으로 흐르던 강은 여기서 끝난다. 그러나 강의 얘기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황룡강은 유역주민들에게 더러 삶을 고달프게 했고 버거운 재난의 원인이었지만 그래도 깨끗하게 삶을 이어가게 만든 버팀목이자 생명의 원천이었다. 다양한 삶의 스펙트럼을 간직한 이 강의 역사는 우리가 지켜봐온 시간만큼이나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